

〈雲英傳〉의 공간적 의미와 비극의 성격*

- 수성궁을 중심으로 -

문범두**

|| 차례 ||

- I. 서론
- II. 안평대군의 지향과 수성궁
- III. 애정의 파탄과 그 사회적 함의
- IV. 비극 서사의 형식과 서술시각
- 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운영전>의 소설 공간으로서 수성궁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비극 서사의 형식을 따져보고, 그것의 작가 서술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우선, 수성궁을 유교 질서의 한 형상으로 본 기존 견해와 달리 궁주인 안평대군의 의취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필과 예능의 공간으로 보았다. 안평대군의 궁녀 교육은 유교적 인격의 달성이 아니라 높은 예술적 성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는 정치현실에서의 좌절을 문필로써 극복하려는 그의 의도에 닿아 있다.

운영과 안평대군의 관계를 대립구도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운영이 겪는 애정 비극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일단 운영과 김진사의 결연을 가로막는 것은 궁녀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을 또 다시 좌절케 하는 것은 그녀가 주변인과 맺고 있는 인간적 정리, 혈연관계, 우정과 의리 등이다. 말하자면

* 이 논문은 2014년도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희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운영의 애정 비극은 제도적 완고함과 인간적 정리 사이에 끼어 어떤 선택도 용납되지 않는 운영의 운명 그 자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몽유자 운영의 비극적 세계인식은 운영과 김진사가 겪은 애정의 파탄에서 비롯되어 안평의 철저하고 완벽한 몰락에 대한 공감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운영의 인식이 남녀간 애정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역사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운영의 종말담은 궁극적으로 임란과 같은 모순적 상황을 초래한 당대의 무능하고 유약한 문인지배층에 대한 작가의 비극적 자기 인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운영전, 수성궁, 안평대군, 궁녀, 비극

I. 서론

<운영전>은 전기소설의 사적 연맥 속에 위치하면서 완결성 높은 서사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전체적 구성은 몽유구조를 차용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은 꿈 속 화자가 진술하는 회상 형식의 액자 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는 수성궁의 궁녀인 운영과 포의 선비 김진사가 안평대군의 엄명을 거역하고 사랑의 성취를 위해 여러 모로 애쓰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안평대군이라는 실제 역사상 인물을 등장시킨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일정한 통제 속에 있는 궁녀가 궁 밖 선비와 애정 행각을 벌이는 설정 역시 가볍지 않은 주제의식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자들은 애정을 두고 벌여지는 갈등을 작품 의미의 중심에 두고, 이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소설적 특성들과 그 사회적 의미를 살피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주요 무대가 되는 배경으로서 수성궁의 공간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논의는 남녀간 애정 문제를 역사·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켜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졌다.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사궁으로서, 그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곳이다. 제한된 공간 내에서 궁주가 의도한 일정한 방향으로 궁녀들을 훈육한다는 측면에서 수성궁은 질서를 갖춘 사회집단의 한 관념적 형상으로 간주되었다. 남녀주인공의 결연 의지가 그 질서에 맞서는 형국을 보이는 한에 있어서는 수성궁은 당연히 애정을 방해하는 압제와 폭력을 상징하는 공간이 된다.¹⁾ 수성궁의 질서가 갖는 사회, 역사적 의미도 이런 맥락에서 모색되었다. 결국 남녀주인공의 사랑은 수성궁으로 대변되는 불의한 권력 또는 비인간적 가치에 맞서는 저항으로, 또 그 비극은 쉽사리 깨치기 어려운 권력과 시대적 이념의 강고함에서 비롯된 좌절과 파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수성궁이 하나의 관념 공간으로서 애정과 같은 인간적 가치 지향에 대한 장애나 질곡으로서의 의미만 갖는다면 몇 가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선, 액자 내부 이야기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안평대군과 당대 최고의 문인재사들 그리고 궁녀들로 조성되는 수성궁의 문명적 환경이다. 학문과 예능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궁녀에 대한 강압과 폭력으로만 보는 것도 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수성궁의 질서가 애정 추구의 대립항으로서만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본고는 수성궁의 공간 성격에 대한 앞선 논의에 의지하면서, 위에 제기

1) 수성궁의 공간 개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논의로는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박일용,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국어국문학』 제98집, 국어국문학회, 1987;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제9집, 한성어문학회, 1990;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제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정출현,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사, 1999.

한 몇 가지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안평대군에 의해 조성되는 수성궁의 환경에 대한 서술충위에서의 시각을 선입견 없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성궁의 공간적 성격에 대한 이해 방식을 달리 한다면 <운영전>의 비극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애정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을 작중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내적 한계에서 찾아보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애정비극의 사회적 함의를 따져보고자 한다. 나아가 애정의 파탄이라는 액자 내부 이야기를 포함해서 전체의 서사구조 속에서 생산되는 비극의 실체를 규명해 볼 것이다. 이는 본 작품의 비극적 구조가 지니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넘겨 애정이라는 범주를 넘어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본고를 통해서 <운영전>의 작품 세계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²⁾

II. 안평대군의 지향과 수성궁

수성궁의 공간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궁주가 되는 안평의 기본적인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러나 안평대군의 성격을 명쾌하게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절대권위를 행사하는 궁주 안평과, 운영에게 마음을 두고도 강제하지 못하고, 서궁 궁녀들의 장살을 명했다가 그들의 절절한 호소에 마음을 움직이는, 섬세하고 다감한 인물로서의 안평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논의에서 안평을 보는 시각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위와 같은 그의 복합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하겠다.³⁾

2) 본 연구의 텍스트는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第二版)』(朴熙秉 標點·校釋, 소명출판, 2007) 소개 <운영전>으로 한다.

일단은 안평과 궁녀가 맺고 있는 관계의 의미를 면밀히 따져가는 방식으로 그의 서사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안평이 궁녀 10인을 가려 뽑아서 교육한 것은 당대적 환경에서 흔한 일은 아닐 것이다. 궁녀들의 역할이 주로 궁주를 포함한 그 족친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안평은 궁녀들로 하여금 궁 밖 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궁녀의 바깥출입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했겠지만, 궁이 ‘너희가 한 번이라도 궁 밖을 나가면 죽을 것이고, 바깥사람이 너희 이름을 알아도 죽을 것이다.’⁴⁾라고 명할 정도라고 하면, 상계를 벗어나는 매우 엄중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안평의 궁녀교육은 조선조 유생들의 교육과정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소학을 시작으로 유학 관련 경서, 역사서 등을 섭렵케 하고 이어 이백과 두보 등의 당시(唐詩)까지 익히게 하고 있다. 안평이 궁녀들을 교육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기존 논의에서는 궁녀들을 외부와 엄격히 차단한 것과 또 경서를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 등을 들어, 안평의 교육은 궁녀를 통해 자신의 어떤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박일용 교수는 이를 설명하여 ‘(안평)자신이 생각하는 義라는 이념적 틀에 의도적으로 뜯어 맞추려 한’ 때문이라고 하였다.⁵⁾ 특히 유학 경전을 중심으로 가

3) 안평대군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기왕의 부정적 평가를 수정하기 위한 것(박기석, 『운영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p.720.)이라든가, 작가가 안평대군의 역사적 운명에 대해 동정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고소설연구』 제2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p.76.) 등으로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와 함께, 안평대군을 보수적·부정적 인물로 형상화 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성현경, 『운영전』,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0, p.18.)도 있다.

4) 侍女一出宮門 則其罪當死 外人知宮女之名 則其罪亦死

5) 박일용, 앞의 논문, p.167.

르치고, 순수한 성정을 갖도록 한 것을 근거로 수성공의 질서를 ‘조선중기의 성리학적 세계관의 형상화’라 하였다.⁶⁾ 안평의 교육이 유학 경전을 바탕으로 하고, 또 궁녀들로 하여금 성정의 순연함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액자 내부 서사의 첫머리에 서술되고 있는 안평의 성격적 형상이나, 그렇게 훈육되는 수성공 궁녀들의 일상적 삶의 태도가 성정 수양의 유학적 엄정성과는 다소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궁녀들을 일방적으로 강압하고 통제하는 절대적 권력자로 안평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액자 전반부 그에 대한 호의적 서술과 서사논리적 모순에 빠진다는 문제점이 있다.⁸⁾ 이런 이유로 안평의 궁녀에 대한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일단 작품에서 안평의 모습을 보자. 역사적 인물로서의 평가는 그에 대한 정치, 사회적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운영전>에서의 수용 태도일 것이다. 운영이 몽유자 유명의 칭으로 김진사와 겪었던 일을 말하는데 다음으로 시작한다.

세종대왕의 아드님이신 여덟 분의 대군 중에 안평대군이 가장 영특하시었지요. 대왕께서 매우 사랑하시어 상을 내리신 것이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6) 박일용, 앞의 논문, pp.170-171.

7) 이러한 교육 방식을 근거로 한 수성공의 성격에 대한 박일용교수의 견해는, 비록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 맥락에 대해서는 대개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각주3의 논문 참조)

8)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안평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것이 운영을 고난을 가져오는 전체 서사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기존 논의는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정길수, 앞의 논문, 같은 곳 참고)

서 소유하신 전답과 재화가 궁궐 내에서 으뜸이었습니다. 나이 열세 살 때 私宮으로 나와 거하셨는데, 그 궁이 곧 수성궁입니다. 유학을 공부하는 데 자부심을 지니시고 밤이면 글을 읽고, 낮에는 가끔 시를 지으셨습니다. 때로는 글씨를 쓰셨는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문인 학사들이 모두 궁에 모여들어 재주를 다투었지요. 때로는 새벽닭이 울고 새벽별이 보일 때까지 토론을 그치지 않았습니니다. 대군께서는 또 필법에 뛰어나셔서 온 나라에 이름이 자자했습니다. 형님 되시는 문종대왕께서 아직 보위에 오르시기 전 매번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안평대군의 필법을 논하여, “내 아우가 만약 중국에 태어났더라면 비록 왕희지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찌 조맹부보다야 못하겠는가?”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마지않았습니다.⁹⁾

안평은 세종의 여덟 대군 중에 가장 영특하였다. 열세 살 때부터 수성궁에 거하면서 글을 읽고 시를 지으며 글씨를 썼는데 필법은 조맹부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학에 대한 깊은 학자적 식견과 詩作에 능하고 필법에 뛰어난 문예적 천재성을 지닌 안평의 면모를 보여준다.

안평의 수성궁 경영은 자신의 문예적 意趣를 실현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정자 10여칸을 지어 비해당이라 이름하고 그 옆에는 盟詩壇을 쌓았다. 이 맹시단으로 당시 문장으로 이름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고 하였다. 단은 맹약의 증거로 삼거나,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 세우는 구조물이다. 천단이나 사직단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축조한 단은 하늘의 명을 받는 처소로서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안평의 맹시단 축조는 수성궁을 당대 문인재사의 결집체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의 중심은

9) 莊憲大王 八大君中 安平大君最爲英睿 上甚愛之 賞賜無數 故田民財貨 獨步諸宮 年十三 出居私宮 宮名卽壽聖宮也 以儒業自任 夜則讀書 晝則或賦詩 或書隸 未嘗一刻之放過 一時文人才士 咸萃其門 較其長短 或至鷄叫參橫 講論不怠 而大君又工於筆法 鳴於一國 文廟在邸時 每與集賢殿諸學士 論安平筆法曰 吾弟若生於中國 雖不及於王逸少 豈下於趙松雪乎 稱賞不已

조정일지라도 문장의 중심은 수성궁이라는 나름의 의도와 자공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수성궁에는 당대 쟁쟁한 문사들이 무시로 드나들면서 詩能을 다룰 뿐만 아니라, ‘새벽닭이 울고 새벽별이 보일 때까지 토론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안평의 수성궁은 유학의 이념을 실현하는 곳이라 하기 보다는 문인재사들이 모여 문장과 예능을 다투는 경연장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면 그의 궁녀 교육도 이러한 그의 수성궁 경영 태도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 그가 궁녀를 교육한 의도를 일단 문면 그대로 살펴보자.

하늘이 사람에게 재능을 부여할 때 어찌 남자에게만 넉넉하고 여자에게는 인색하겠는가? 지금 세상에서 문장으로 자부하는 사람이 적지 아니하나 높여 받을 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해 특출한 자가 없으니, 너희들이 분발하도록 하여라.¹⁰⁾

안평이 궁녀들에게 한 발언이다. 세상에서 문장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궁극의 지위를 얻지 못했으니 너희 궁녀들이 분발하여 제대로 된 문장을 지어보라는 이야기이다. 즉 안평이 궁녀들을 훈육한 목적과 의도는 궁녀들로 하여금 앞선 시대 문장가들이 달성하지 못했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다는 의미이다. 남녀 사이에 능력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 가능성을 함께 인정하고 있는 것은 남성이 중심이 되었던 중세 시대의 통념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 남성과 동일한 능력을 지녔으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에 대한 안평의 깊은 인식의 결과 인지는 알 수 없다. 단지 여기서는 안평의 의도가 최고의 문장가를 기르는 것이라면 여성들이 지닌 기본적 자질이 남성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이 전체

10) 天之降才 豈獨豐於男 而畜於女乎 今世以文章自許者 不爲不多 而皆莫能相尚 無出類拔萃者 汝等亦勉之哉

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안평의 이러한 의도는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5년이 지나자 궁녀들의 능력은 비록 안평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음률의 청아함과 구법의 완숙함은 성당 시인의 경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¹¹⁾ 안평은, ‘靑烟’을 시제로 궁녀들로 하여금 지은 시를 평가하여 “비록 만당의 시와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다. 성삼문 아래로는 견줄 수가 없겠구나.”¹²⁾라고 한 것에서 보듯 그들의 성취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평은 수성궁을 문장과 예능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였다. 당대 최고의 문장과 필법으로 인정받는 성삼문과 최홍효 같은 인물들을 불러들여 재능을 발휘하게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의도와 닿아 있다. 역대 문장가들의 시적 성취에 관한 개인적 불만을 궁녀들을 교육시켜 해소하고자 한 것도 그런 분위기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역사 누대로 이르지 못한 경지를 연 궁녀의 시, 그것은 어떤 것인가. 다음은 ‘청연’시를 접한 후 성삼문이 평한 내용이다.

…고려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600년이 지났습니다. 시로 이 나라에 이름을 떨친 자는 그 몇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나, 때로는 탁하여 아름답지 않고, 때로는 맑기는 하나 가벼우니, 모두 음률에 맞지 않고 性情을 잃어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를 보니 풍격이 맑고 진실하며 초월의 뜻이 있어 혼탁한 이 세상의 분위기가 조금도 없습니다…¹³⁾

11) 其卓犖之氣象 縱不及於大君 而音律之清雅 句法之婉熟 亦可以窺盛唐詩人之蕃籬也

12) 雖比於晚唐之詩 亦可伯仲 而謹甫以下 不可執鞭也

13) 自前朝迄于今 六百餘年 以詩鳴於東國者 不知其幾人 而或沉濁而不雅 或輕清而浮躁 皆不合音律 失其性情 吾不欲觀諸 今觀此詩 風格清真 思義超越 小無塵世之態

성삼문은 궁녀 시의 특징으로 ‘風格清真’ ‘思義超越’하여 ‘小無塵世之態’하다고 하였다. 맑고 진실한 내면이 시의 풍격을 이루고, 생각하는 바와 뜻하는 것이 인간의 시시비비를 초월하여 조금도 세상의 속된 태도가 없다는 뜻이다. 보통 사람들이 항차 지닐 수 있는 허물에서 벗어나 한 점 샅되지 않은 성정의 바름을 얻었으니 그 시 또한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즉 시의 높은 경지는 세상과 절연한 상태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평이 궁녀들로 하여금 굳이 세속과 절연할 것을 강제한 의도를 찾을 수 있다. 즉 그것은 세상의 이해관계나 시시비비에서 벗어나 순연한 성정의 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내면의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그것이 시로 발현될 때 최고 경지의 시적 성취에 이를 수 있다는 안평의 판단이다. 이는 안평이 ‘천하의 모든 학자들은 반드시 조용한 곳에서 공부한 후에 경지에 이른다. 도성문 밖 산천이 고요하면서 마을과 다소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공부한다면 마음을 오로지 쏟을 수 있을 것이다.’¹⁴⁾고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유학 중심의 교육을 통해 순연한 성정을 갖도록 하는 내용은 성리학적 인간상의 구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안평이 궁녀들에게 유학 경전 등을 가르친 이유는 위에서 보듯이 궁녀들로 하여금 역사상 어느 문사도 이르지 못했던 시적 경지에 도달케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유학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안평이 궁녀들에게 요구한

14) 天下百家之才 必就安定處 做工而後可成 都城門外 山川寂寥 閭落稍遠 於此做業 可以專精

15) 지금까지 논자들이 수성궁을 유학 이념의 형상으로 본 근거는 궁녀들을 외부와 차단시키고 순수본연의 성정을 갖도록 한 데 두었다. 그러나 안평의 궁녀 교육의 의도를 작품 내용으로부터 파악한다면 그러한 교육방식은 높은 수준의 시적 성취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서사논리상 타당하다고 보겠다. 단지 그것이 궁녀들에게 강박과

것은 도학적 수양을 통한 유교적 인격의 달성이 아니라 그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높은 예술적 성취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은 궁녀들의 일상적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궁녀들은 성정을 도야하기 위해 수행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시를 짓고 그를 소재로 담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중요한 일과로 삼고 있다. 즉 안평에 의해 조성되는 수성궁은 어떤 지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은 이념에 의해서 체계화된 어떤 ‘질서’이기보다는 시와 같은 예술적 분위기가 지배하는 공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수성궁 내에서의 인간관계도 이러한 문필적 교감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안평이 성삼문 등을 불러 교제를 이어간 연유도 정치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문필적 공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김진사를 부른 것도 결국은 같은 이유이다. 안평이 김진사에게 “오래 아름다운 소문을 듣다가 직접 이렇게 찾아주시니 밝은 빛이 온 집안을 비추는 듯하오.¹⁶⁾”라고 한 것은 청년문사로서 詩名이 도도한 것에 감탄한 까닭인 것이다. 안평은 김진사를 부르면 의당 시를 짓게 하고 그 뛰어난 시적 성취에 놀라고 감탄하고 있다. 그와 나눈 대화라는 것도 유학의 실현에 대한 이념적 토론이 아니라 이백과 두보의 시풍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안평이 이처럼 수성궁을,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이루거나 또는 차원 높은 시적 경지를 여는 공간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작가 서술적 시각이 궁금하다. 정출현 교수는 안평의 궁녀 교육이 ‘성리학적 이념의 형상화’라는 박일용교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그것은 ‘정치, 사회적인 활동이 차단되거나 견제 받았던 그의 정치적 욕망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 하였다.¹⁷⁾

통제로 여겨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16) 久仰聲華 坐屈冠蓋 光動一室

17) 정출현, 위의 책, p.95.

즉 수성공의 질서를 ‘그(안평)가 추구하던 정치적 이상의 은유’¹⁸⁾로 이해하였다. 안평의 수성공 경영 방식은 현실정치에서의 그의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일정부분 동의할 수 있다. 안평은 수양대군에 밀려 불우한 정치 이력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그는 예능적 기예에 뛰어나고 문필적 감수성이 남다른 인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수성공을 문장의 중심공간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나 궁녀를 통한 시적 교육은 현실에서의 자신의 실패를 문장이라는 자신의 장기로 보상하려는 심리에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문필의 역사 600년 동안에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경지로 궁녀들을 끌어가려는 의도에서 정점에 이른다. 이제 안평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문필적 성과만이 자기 존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셈이다. 시적 성취에 대한 안평의 이러한 애착과 몰입을 궁녀들도 이미 아는 듯, 안평의 의심을 받은 운영이 목을 매 죽고자 하였을 때 자란은 안평에게,

“주군께서 이처럼 영명하신 데도 죄 없는 저희들을 사지로 몰아가시니 지금 이후로는 맹세코 붓을 잡고 글을 짓지 않겠습니다.”¹⁹⁾

라 하고 있다. 일종의 ‘업포’라고 보겠는데, 안평에게 있어서 문필적 성취라는 게 까마득한 아랫자리에 있는 궁녀가 지존의 궁주를 엮어낼 구실이 될 정도로 절대적 가치임을 보이는 대목이다. 즉, 안평의 수성공 경영은 그것이 그의 정치적 은유로서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정치에서의 실패를 문장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극복하려는 의도에 닿아 있는 것이다. 이상구교수는 안평의 수성공 경영을 ‘정치적 좌절에서 오는 현실세계

18) 정출헌, 위의 책, p.96.

19) 主君如是英明 而使無罪侍女自就死地 自此以後 妾等誓不把筆作句矣

에 대한 부정과 일탈'이라고 하였다.²⁰⁾ 그것이 '도가적 편향으로 기울어진 것'²¹⁾으로 본 것은 또 다른 천착이 필요하겠지만 그 원인의 진단은 적의하다 하겠다.

안평대군은 운영에게 마음을 두었다. 만약 그가 중세적 윤리를 제외한 어떤 인간적 감정도 혼탁한 욕정으로 보고, 궁녀들에게 그러한 인간적 감정을 강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궁녀들을 인간세계와 절연시킨 것²²⁾이라 한다면 안평의 운영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스스로 믿는 바에 대한 자기기만이고 모순이다.²³⁾ 자신도 굳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감정의 동요를 궁녀에게는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때문이다.

안평의 지향은 성리학적 세계관의 실현이 아니라 문필적 성취라고 하였다. 수성공의 안평이 현실정치에서 좌절하고 다시 궁으로 물러나 궁녀들에게 유교 성리학을 실현하고자 했다는 이해방식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그러한 안평의 심리상태를 굳이 논한다면 엄정한 유학적 수양보다는 오히려 정서적 일탈과 방임에 놓여 있었다는 게 타당하다. 물론 조선조에서 현실의 부조리에 저항하여 산림에 퇴복함으로서 도학자적 수양에 몰입하는 사

20) 이상구, 앞의 논문, p.141.

21) 이상구, 앞의 논문, p.142.

22) 박일용, 앞의 논문, p.171.

23) 이상구 교수 역시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평대군이 그렇다면 '모순에 가득 찬 인물'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운영에 대한 안평의 사랑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평의 내적 갈등 및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교수는 그 전환의 증거로 운영의 애정행각을 용서해 준 사실을 들고 있다. 자기모순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에게 자신의 사랑을 강요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면 안평은 역시 궁녀에 대한 교육 초기부터 내면 갈등을 겪고 있었던 셈이니 자기기만의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신념에 흔들리면서도 궁녀들에게 엄정한 유교적 훈육을 베풀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정이다.(이상구, 앞의 논문, pp.142-146.)

림 출신 선비도 있었다. 그러나 안평의 경우 재능 있는 궁녀들과 문필로 수작하고, 재야의 문인재사를 초치해 시작과 논평을 일삼는 생활을 엄정한 도학자의 수행방식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색하다. 궁녀에게는 외부 사람과의 만남조차 차단하면서까지 유교성리학적 인격으로서의 인간 개조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문인재사와 수창하며 풍류 속에 자약했다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안평의 운영에 대한 애정의 감정을 문필적 몰입을 가능하게 한 심리의 토양 위에서 본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현실 정치에서 한발 물러나 문장과 예능이라는 수단을 빌어 정서적 일탈을 꾀한 안평의 입장에서는 궁녀에 대한 마음의 기울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안평부인과의 정 때문에 스스로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여 운영을 강압하지 못하는 섬세한 배려도 유교 이념을 주입하는 절대권자의 심리 상태로 설명하기 어렵다. 역시 안평이 궁녀들을 초사를 보고 서궁 궁녀들을 ‘용서’하는 것도 안평이 유교의 경직된 이념을 고수하는 인물이 아니라 예능적 기예를 지향하는 열린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극히 낮은 신분의 궁녀들에게 역사상 누구도 이르지 못한 최고의 시적 재능을 찾고자 하는 다감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궁녀들의 겪는 고충마저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수성궁은 왕이나 그 족친이 거주하는 ‘궁’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공간개념과는 별개로 안평의 문필적 예능적 지향이 실현되는 장소로서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본 작품의 갈등구조를, 궁이 지닌 전통적 의미와 안평의 지향을 하나의 가치로 보고, 그것이 운영의 애정 추구와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운영이 겪는 비극적 상황도, 운영의 애정지향에 대해 수성궁이라는 공간으로 상징되는 중세적 권력의 일방적 폭압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다음 항에서 이 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애정의 파탄과 그 사회적 함의

수성궁은 왕조시대 절대 권력을 누리던 안평대군의 처소이다. 당연히 궁중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궁중법도라 할 수 있는 일정한 내용을 지닌 유, 무형의 규칙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평은 자신의 이 처소를 당대 최고의 문장가나 예능인을 불러들여 그들의 기예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공간으로 삼았다. 그뿐 아니라 궁녀들로 하여금 전대 문장가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궁극의 시적 경지를 열고자 하였다. 안평은 그 시적 경지라는 것이 시정의 온갖 시시비비에서 벗어나 순수한 내면 본성을 지키는 경우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이유로 궁녀들을 외부로부터 엄중히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문제는 궁녀들의 처지이다. 이미 궁중법도로도 궁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터에 안평의 영은 궁녀들의 고립감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수성궁의 이러한 환경적 조건이 궁녀들을 각성케 하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러한 각성이 당대 사회의 보편적인 사회의식과 충돌함으로써 비극이 발생하게 됨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운영이 어떻게 궁녀 제도라는 중세 체제에 저항하고 자유로운 인간성정의 발현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과 동기는 안평이 조성한 수성궁의 문필적 환경 자체에 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운영의 애정 지향은 기본적으로 궁녀로서의 자기 신분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한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 각성은 궁녀들로 하여금 최고의 시적 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안평의 의도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군 부인께서 절 사랑해 주시기를 자기 자식과 다름없이 하시고, 주군께서 저를 평범한 시녀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궁중 사람들도 저를 친척 같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한결같이 학문에 전념한 후로는 다소간 의리를 알고 음률에 능하게 되어 궁중 사람들이 칭찬해 마지않았습니다. 서궁으로 옮긴 후로는 거문고와 책에 마음을 쏟아 조예가 깊게 되었습니다. 무릇 손님들이 지은 시는 하나도 눈에 차니 않으니, 인제는 얻기 어렵다는 말이 옳지 않은가요? 한스럽기는, 남자의 몸이 되어 이름을 세상에 떨치지지는 못하고 부질없는 흉안박명의 여자 몸이 된 것입니다. 한번 깊은 궁에 갇히게 되면 결국 말리죽을 따름이니, 인생살이 한번 죽은 후에는 누가 다시 그를 알아주겠습니까?²⁴⁾

운영이 김진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한 부분이다. 안평의 의도에 따라 학문을 연마하고 음률을 익힌 사정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학문에 접하게 되고서부터 비로소 ‘의리(義理)’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인간적 규범과 예의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나아가 한 인간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 자각은, ‘손님들이 지은 시는 하나도 눈에 차지 않는다(凡賓客所製之詩 無一掛眼)’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여자 또한 남자에 못지않은 재성을 갖출 수 있다는 자기 확신과 자궁에서 오는 것이다. 요컨대 안평에 의한 유학의 가르침과 시작 교육은 궁녀로 하여금 존재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24) 夫人愛之 無異己出 主君亦不以尋常侍兒視之 宮中之人 莫不親愛如骨肉 一自從事學問之後 頗知義理 能審音律 故宮人莫不敬服 及徙西宮之後 琴書專一 所造益深 凡賓客所製之詩 無一掛眼 才難不其然乎 恨不得爲男子之身 而揚名於當世 空爲紅顏薄命之軀 一閉深宮 終成枯落而已 人生一死之後 誰復有知之者

것이고, 그러한 성찰에서 현재의 처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²⁵⁾ 그러나 안평의 교육이 궁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유독 운영의 자기 인식이 심각하고 깊었는가. 그것이 다른 궁녀와 달리 김진사를 사모하게 된 운영의 ‘문제적 인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왕조시대에서 궁녀는 절대 권력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궁에서의 소임에 따라 행동반경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과의 만남조차도 용이하지 않았다. 타인과 정을 나누거나 혼인을 할 수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절대 권력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함으로써 그 권위 유지에 일조를 한다는 측면에서 왕조시대에서 궁녀 제도는 일부 인간본성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궁녀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합리적인 계약은 아닐지라도 신역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도 어느 정도 용납되고 이해되는 수준에서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경제적인 대가가 주어졌을 것이지만,²⁶⁾ 실력자의 지근에 위치함으로써 얻게 되는 일종의 권력은 궁녀 개인에게나 궁녀가 속한 집단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요소였음에 틀림없다. 궁녀가 신분상 천민에 속하기는 하나 양인이나 양반의 서녀까지 궁녀로 입궁하는 예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²⁷⁾ 이런 조건에 대한 국가와 개인 사이에 암묵적으로나마

25) 이런 차원에서 수성궁이 ‘남녀주인공의 결합을 가로막는 중세적 세계관과 질서로서 절대적인 애정 장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 박일용교수의 견해는 한 측면만을 말한 것이 된다.(박일용, 앞의 논문, p.165.) 즉, 수성궁은 ‘궁’이라는 제도로서의 중세적 규범 속에 있지만, 안평에 의한 문필적 환경은 오히려 애정 의지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6) 궁녀 제도에 대해서는 홍순민 교수의 논문(『조선시대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68, 역사문제연구소, 2004)을 참고할 수 있다.

호혜적 동의를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궁녀가 이런 호혜적 조건 등에 만족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궁주 외 다른 남자와의 연애나 혼인의 기회를 상실하고, 물리적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등의 불이익도 스스로 감수하게 된다. 개인에 따라서는 일반 백성으로 궁핍하게 살아가기 보다는 오히려 궁녀로서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만족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궁녀가 유, 무형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보상보다는 개인적 희생이 절대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비극은 거기에서부터 싹틀 수 있다.

다음은 안평이 공부에 전념하게 한다는 이유로 궁녀 다섯을 따로 서궁에 머물게 하자 그 새로운 처소에 대한 옥녀의 말이다.

그옥한 꽃, 하늘거리는 풀, 흐르는 시내에 향기 가득한 숲 속. 정말 자연 속 별장과 같으니 독서하는 집이라 할 만하네.²⁸⁾

옥녀는 궁녀의 삶을 특별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궁이 제 공하는 최적의 환경적 조건과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고상한 취미에 자못 만족스럽기도 한 것이다. 운영이 이런 옥녀의 태도를 일깨워, “종도 아니고 중도 아닌데 이런 깊은 궁에 갇혔으니 장신궁이라 할 수 있겠네.”²⁹⁾라고 하자 옥녀는 비로소 현재의 처지를 깨닫고 비탄에 빠진다. 그러나 이러한 옥녀의 감정은 운영의 일깨움으로 해서 현재의 처지에 대해 느끼는 일시적인 불우의식일 수 있다. 궁녀로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애초에 몰랐던 것은 아닐 터이니, 감정이 수습되고 냉정을 찾을 때는 궁녀로서의 삶에 대

27) 홍순민, 위의 논문, p.257.

28) 幽花細草 流水芳林 正似山家野庄 眞所謂讀書堂也

29) 既非舍人 又非僧尼 而鎖此深宮 眞可謂長信宮也

한 가치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운영은 다른 궁녀들의 이러한 태도와는 다르다. 김진사를 처음 본 순간부터 자기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김진사에 보낸 편지글의 일부이다.

…지난 해 가을 처음 낭군의 모습을 뵈었을 때 천상의 신선이 인간 세상에 귀양 온 것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저의 용모가 아홉 사람 중에서 제일 못한 데도 무슨 전생의 인연이었던가요, 붓끝 하나의 먹물 방울이 마침내 가슴 속 원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벽 사이로 바라보는 것으로도 함께 할 인연인가 여기고, 꿈속에서라도 보게 되면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이불 속 정을 나눈 적은 없지만 아름다운 모습이 환하게 제 눈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배꽃 속 두견새 울음소리, 오동잎에 밤비 내리는 소리는 차마 들을 수 없고, 뜰 앞에 핀 하늘거리는 풀이나 하늘 끝 외롭게 나는 새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병풍에 기대어 앉고 때로는 난간에 의지해 서서는,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홀로 푸른 하늘에 호소할 따름입니다. 낭군께서도 저를 생각하시는 하시는지요? 단지 한스럽기는, 낭군을 뵈기 전에 먼저 스스로 죽게 되어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까지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³⁰⁾

운영은 김진사를 사모하게 되었다. 궁녀로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법도를 어긴 것을 물론이고, 궁중 밖 어느 사람이 궁녀 누군가의 이름만 알게 되어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안평의 엄중한 영을 거역한 것이다. 붓끝의

30) 上年秋月之夜 一見君子之容儀 意謂天上神仙 謫下人間 妾之容色 最出於九人之下 而有何宿世之緣 那知筆下之一點 竟作胸中怨結之祟 以簾間之望 擬作奉帚之緣 以夢中之見 將續不忘之恩 雖無一番衾裏之歡 玉貌丰容 況在眼中 梨花杜鵑之啼 梧桐夜雨之聲 慘不忍聞 庭前細草之生 天際孤雲之飛 慘不忍見 或倚屏而坐 或憑欄而立 搥胸頓足 獨訴蒼天 不識郎君亦念妾否 只恨此身未見郎君之前 先自溘然 則地老天荒 此情不泯

먹물 한 방울이 계기가 되어 꿈속에서라도 만날까 애태우고 그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을 보아도 어떤 것을 들어도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돋우는 듯하다. 잠시 자기가 처한 형편을 돌아보고 일시적인 감상에 빠지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이다. 궁중의 어떤 좋은 것이라도 김진사를 향한 사랑의 무게를 덜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까지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것³¹⁾’이라 하였으니 죽음 외에는 그 사랑을 그치게 할 방법도 없다.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안평대군의 가르침을 중세적 윤리 외에 인간적 감정을 제거한 상태의 성리학적 이념과 세계관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 한다면 당연히 안평대군이 애정의 방해자가 된다.³²⁾ 그렇다면 궁녀의 입장에서 중세 질서로서의 궁중법도와 안평대군의 통제는 동일시될 것이다. 운영을 비롯한 궁녀의 저항은 안평에 대한 저항일 뿐 아니라, 중세적 질서 자체에 대한 부정이 된다. 그러나 안평의 지향은 자신의 문필적 의취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비록 궁 안에 갇힌 궁녀이지만 여성문사로서의 자긍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안평을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적대적 인물로 여긴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 이미 앞선 연구자들이 밝힌 바이지만 실제로 궁녀들은 문필적 교육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인간적 가치를 발견하게 한 안평에 대해 깊은 은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³³⁾

앞서 운영을 비롯한 궁녀가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깨닫게 된 계기가 안평의 문필교육에 있음을 보았다. 궁녀들은 그러한 문필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의 현재처지에 대한 각성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지만, 그런 까닭으로

31) 地老天荒 此情不泯

32) 박일용, 앞의 논문, p.171.

33) 정출현, 앞의 책, p.110.; 이상구, 앞의 논문, p.150.

해서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준 안평에 대해 깊은 은의를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궁녀들이 안평에 대해 ‘恩愛, 撫恤, 慈愛’의 감정을 느낀 것³⁴⁾은 성리학적 훈육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들이다. 성리학이 엄격한 상하질서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 그것은 궁녀들에게 오히려 신분적 질고를 더하는 계기가 될 뿐일 것이다. 그러나 문필은 신분적 상하를 넘어 인간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는 상대적인 우월감도 느끼게 한다. 기녀의 예에서도 보듯이, 당대로서는 신분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인간적인 자긍과 존재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일 것이다.³⁵⁾ 최소한 안평의 훈육을 궁녀들이 은혜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비록 그의 엄명으로 현실적인 속박이 가중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저항이 유교적 이념에 대한 전적인 부정의 차원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안평에 대한 궁녀의 감정이 은혜뿐만 아니라 권세나 위엄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세 신분제 사회에서 절대권력자에 주어 진 극복할 수 없는 당연한 가치로 여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운영을 포함한 궁녀들이 자신의 삶을 속박하는 적대적 실체로서 인식한 것은 궁녀제도, 또는 궁중법도 그 자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운영은 궁녀이다. 궁중법도는 궁녀가 궁주 외 외간 남자와 인연을 맺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더구나 비록 시적 성취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안평대군의 특별한 엄명까지 있었다. 김진사와의 애정을 이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궁의 일반적 법도, 또는

34) 이상구, 위의 논문, 같은 곳.

35) 이상구, 위의 논문, 같은 곳. 이교수는 궁녀들과 안평 사이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 ‘상호간 인간적인 교감의 문제가 개재되었다고 하고, 그것은 안평대군이 자신의 계급적, 이념적 한계 내에서나마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이끌어 가고자 했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평을 성리학적 권위로 이해하면서 다시 그 내면의 변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안평대군의 엄명이 김진사와의 애정을 이어가는 데 극복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절대적 장애가 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는다는 데 이 작품의 비극적 특성이 있다.

운영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김진사와의 사랑을 이어갈 방법이 무엇인가. 김진사의 종 특이 제안한 내용을 보자. 김진사가 월장을 하면서 운영과의 정을 이어가기는 하나 그 만남이 기약 없고 또 대군에게 죄를 짓는 것에 근심을 떨치지 못하자 특은 주인에게 “그러면 몰래 (운영을) 들춰 엮고 도망가지 않습니까?³⁶⁾”라고 한다. 운영과 함께 궁을 벗어나 먼 곳에서 성명을 숨기고 살아간다면 둘만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김진사는 그 계책을 옳게 여기고, 운영 또한 이를 허락한다. 운영은 이에 더하여 자신이 궁중에서 모아두었던 재물을 실어내기까지 한다. 이는 궁녀의 일상을 통제하는 궁중 법도나, 그 법도에 특별한 무거운 무게까지 더해졌던 안평의 명이 운영의 결연의지 앞에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운영은 이를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다. 다음은 수성궁에서 달아나고자 하는 운영에게 하는 자란의 말이다.

서로 만난 지 오래 되었다 하나 어찌 이렇게 빨리 화를 재촉하는 거니? 한 두 달 서로 사귀는 것으로 충분한데 담을 넘어 도망을 가다니, 어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한단 말인가? 주군께서 너에게 마음을 주신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떠날 수 없는 첫째 이유요, 대군 부인께서 깊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떠날 수 없는 둘째 이유야. 그리고 화가 너희 부모님께 미칠 것이니 떠날 수 없는 셋째 이유이고, 죄가 서궁 전체에 미칠 것이니 떠날 수 없는 넷째 이유이지. 또 천지가 하나의 그물망 같은데 하늘로 솟고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니? 만약에 붙잡히게 되면 그 화가 너 몸에만

36) 然則何不竊負而逃乎

그칠 뿐이겠니? 꿈자리가 불길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설사 좋은 꿈이라도 하더라도 너는 갈 수가 있는 것이니? 마음을 억누르고 뜻을 접어 정절을 지키며 평안히 앉아 하늘의 뜻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거야. 너가 만약 나이가 들어 미색이 덜해지면 주군의 사랑도 점점 줄어들겠지. 그 때를 보아서 병을 구실로 오래 자리에 눕게 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실 거야. 그러면 낭군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돌아가 더불어 해로하면 즐거움이 그보다 클 수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감히 이치를 거스르는 계책을 내고 있구나. 너가 비록 사람을 속인다 해도 하늘은 속일 수는 없는 거야.³⁷⁾

자란은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운영이 도망가는 것을 반대한다. 주군인 안평이 운영에게 마음을 기울인지 오래된 것이 첫째 이유고, 대군 부인의 사랑이 깊은 것이 둘째 이유라고 했다. 그리고 화가 부모께 미치는 것이 셋째 이유이고, 그 죄를 서궁의 다른 궁녀들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넷째 이유라고 하였다. 모두 운영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정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결국 운영은 도망갈 계획을 포기하게 된다.

허구서사 세계에서 주인공이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비극적 요인을 비극적 결점(tragic flaw)이라고 한다.³⁸⁾ 비극적 결점은 세계의 질서에 대해 개인적 성향이나 욕망에 치명적인 흠결이 있어 궁극적인 화합과 공존의 가능

37) 相歡日久 無乃自速禍敗耶 一兩月相交 亦可足矣 踰牆逃走 豈人之所忍爲也 主君傾意已久 其不可去 一也 夫人慈恤甚重 其不可去 二也 禍及兩親 其不可去 三也 罪貽西宮 其不可去 四也 且天地一網罟 非陸天入地 則逃之焉往 倘或被捉 則其禍豈止於卿子之身乎 夢兆之不祥 不須言之 而若或吉祥 則汝肯往之乎 莫如屈心抑志 守靜安坐 以聽於天耳 娘子若年貌衰謝 則主君之恩眷漸弛矣 觀其事勢 稱病久臥 則必許還鄉矣 當此之時 與郎君携手同歸 與之偕老 則樂莫大焉 今不此之思 而敢生悖理之計 汝雖欺人 欺天乎

38) 비극적 결점은 비극이론의 기본원리로서, 실수(mistake)에서 시작되어 가공할 정도의 고통과 파멸을 가져온다고 하였다.(김윤식 편저,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지사, 1976, p.99.)

성을 찾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운영전>에서 운영이 지닌 비극적 결점은 무엇인가.

운영은 궁에서 달아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양심과 상식에 대한 거역이고 인간적 정리에 대한 배신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궁에 머물면서 위험한 줄타기와 같은 사랑을 이어갈 수도 없다. 이미 패물을 궁 밖으로 실어낸 사실을 알게 된 안평에 의해 서궁의 궁녀들과 함께 치죄를 당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애정행각을 일삼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운영의 비극적 결점은 분명해진다. 즉 그것은 궁중법도로나 정리로나, 혈연으로나, 의리로나, 도덕으로나 김진사와의 애정을 이어갈 수도 그렇다고 그와의 애정의 끈을 놓지도 못하는, 죽음밖에 어떤 길도 찾지 못하는 극도의 암울한 처지, 바로 그러한 점에 있는 것이다.³⁹⁾

운영의 불행은 일차적으로 인간의 본성적 성정을 억제하는 궁녀제도 자체에서 기인하였다. 말하자면 <운영전>의 애정이 갖는 사회적인 문제의 식은 절대 권력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기본적인 성정마저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궁녀 제도가 지닌 문제점에 맞춰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호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궁녀들이 겪는 수모와 고통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운영이 만약 김진사와의 애정 결합을 다른 어떤 것에도 우선하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여겼다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단지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은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거나 인간적 배신의 굴레를 뒤집어 써야 했다. 즉, 애정의 대립항으로 기능하면서, 운영을 회피할 수 없는 비극에 직면하게 한 또 다른 요인은 운영이 맺고 있는 인간적 관계였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운영이 주군이나 부인과 맺고 있는 인간적

39) 비극성은 주인공의 행위의 귀결이 지니는 불가피성(inevitability)에 달려있다고 하였다.(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1971, p.38.)

정리, 부모 친지와와 혈연 관계, 동기간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서궁 궁녀들과의 우정과 의리 등이다. 그것은 인간사회의 보편적 가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하나도 애정에 적대적인 가치로서 무시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운영으로 하여금 중세의 왕조체제 유지에 필요한 궁녀제도와 보편타당한 인간윤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도 허하지 않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비극서사에서의 작가적 문제의식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본성적으로 지닌 성정의 자연스런 발현을 강압하고 일생 고적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는 왕조시대 한 체제로서의 궁녀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적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위 운영의 편지나 서궁 궁녀들이 안평에 올린 초사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운영이 죽음을 무릅쓰고 궁을 탈출해 애정을 이어 가고자 한 설정은 궁녀제도의 비인간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이 결과적으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정리와 같은 것에 부딪혀 도망할 계획을 접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궁녀제도가 지닌 비인간성을 인정하기는 하나,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의 훼손이 너무나 극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운영전>의 작가는, 앞서 본 바처럼 중세 왕조체제 내에서 생활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왕이나 그 족친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궁녀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깨트릴만한 자체 논리나 대안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남녀주인공의 애정 비극은 궁녀제도의 비인간성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명확하나 당대적 현실에서 그 해결의 전망을 찾지 못한 작가 서술 시각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⁴⁰⁾

40) 주로 여성 독자들이 <운영전>의 운영이 궁녀로서 겪는 인간적 수모와 고통을 당대 자신이 겪는 가부장적 사회 환경에서의 다양한 불이익과 동일시하고, 또 후대 나온

운영의 비극은 궁중제도라는 왕조체제에서 배태된 완고한 세계의 질서 앞에 결국은 애정의 추구라는 인간 본연의 성정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의 패배를 보여준다. 기존의 논의에서처럼 운영은 중세적 이념, 성리학적 제도 전체를 문제 삼는 사회적 영웅의 형상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궁녀 제도가 지니는 비인간성에 대한 문제 제기만으로도 그 무게감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운영의 비극이 궁녀제도라는 중세적 질서에 가로막혀 좌절함으로써 초래되는 파탄의 비극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제도적 완고함과 인간적 정리 사이에 끼여 어떤 선택도 용납되지 않는 운영의 운명 그 자체에서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IV. 비극 서사의 형식과 서술시각

이상에서 운영의 애정 추구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는 내막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운영의 자결과 김진사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두 남녀 주인공의 파국을 작품 전체의 미학적 기조를 뒷받침하는 비극으로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작품이 중층적 액자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⁴¹⁾ 즉, 운영

이본들 중에 이러한 독자층의 의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다소간의 개작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본고에서는 17세기 중엽 이 작품 창작 당시 비록 현실 정치에서 몰려났으나 양반 문인계층으로 믿어지는 작가의 서술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1) <운영전>의 중층적 액자구조의 형식에 대해서는 신재홍교수의 논문(『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 교육』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과 엄태식 교수의 논문(『<운영전>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제2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을 참고할 수 있다.

의 애정사는 비록 그 서술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또 파탄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부액자 이야기로서 작품 구성의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체 서사구조에서 제기되는 작품의 비극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전기소설은 대개 3단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실세계에서 몽중(환상)세계나 이계로, 다시 현실세계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현실계의 주인공은 몽중세계나 이계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다시 현실계로 돌아와서는 세계 인식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다.⁴²⁾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같은 명혼계 전기소설에서 주인공의 각몽은 이계에 속한 여주인공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 현실 세계의 질서로서는 이계의 존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남녀 주인공은 헤어지거나, 헤어진 채 그리움 속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세상을 벗어나 이리저리 배회하거나, 죽은 상대를 못내 잊지 못하다가 요절하는 등의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⁴³⁾는 것이다. 다른 유형의 전기소설도 마찬가지이다. 이계나 몽중 체험 후의 주인공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가 일상의 상식과는 다른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판단에 이른다. <취유부벽정기>나 <남염부주지> 등에서와 같이, 그 특별한 체험과 현실세계에서의 경험칙과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또 그 비밀을 오직 자신만이 알게 되었다는 세계 내의 고립감으로 주인공은 비극적 내면 변화를 겪게 된다. 말하자면 전기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이계나 몽중 체험 후 현실로 복귀한 그 시점에서 비극적 정조가 극대화되고 있다.

42) 강진옥은 『금오신화』를 설명하면서 주인공이 이계의 체험을 통하여 ‘존재론적 전환’을 이룬다고 하였다.(강진옥, 『『금오신화』와 만남의 문제』, 한국고전문학회 편 『고전문학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p.394.)

43)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p.40.

<운영진>의 전체 구성은 소위 몽유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그 내부 이야기는 주인공에 의해 진술되는 회상형식의 액자구조를 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소설의 서사 관습에서 비극적 정황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유영이 꿈을 깨고 난 후의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유영이 또한 술에 취하여 얼핏 즐았다. 잠시 후 산새 소리에 홀연 깨닫고 눈을 뜨니, 안개가 땅에 가득한데 새벽 기운이 푸르스름하게 피어났다. 사방을 돌아보니 사람은 없고 단지 김진사가 쓴 책자가 있을 뿐이었다. 유영은 쓸쓸한 마음으로 책을 수습하여 돌아왔다. 상자에 넣어두고 가끔 내어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멍하니 혼이 없는 것 같이 침식을 전폐했다. 후에 명산을 두루 다녔는데 그 마지막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⁴⁴⁾

유영이 각몽 후 꿈속에서의 경험으로 비극적 세계인식을 겪는 내용이다. 내부액자에서 운영과 김진사 사이의 비극적 애정담은 운영이 이야기를 마치고 김진사가 나머지 이야기를 보충했던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각몽 후 위 유영의 태도와 같은 서사관습적 결말을 전적으로 운영의 애정비극에 대한 몽유자 유영의 정서적 반응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를 충분히 해명할 때 본 작품을 이중 액자 형식으로 한 작가적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유영의 각몽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는 종말담의 비극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몽 전 몽유자의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유영은 만력 신축 삼월 보름이 막 지날 때, 딸린 종도 없고 벗도 없이 홀로 술병을 차고 수성궁을 찾았다고 하였다. 입은 옷이 남루하고 행색이 초라해 구경

44) 柳泳乘醉暫睡 少焉 山鳥一聲 覺而視之 雲烟滿地 曙色滄茫 四顧無人 只有金生所記冊子而已 泳悵然無聊 袖冊而歸 藏之篋笥 時或開覽 茫然自失 寢食俱廢 後遍遊名山 不知所終云爾

꾼들의 비웃음을 살까 염려하였음에도 굳이 수성궁 폐허를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 유영은 ‘수성궁 정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익히 듣고 한번 즐기고자⁴⁵⁾’ 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비록 처음에는 것처럼 단순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소동파의 시구를 읊은 것으로 보아 수성궁의 폐허를 본 뒤에는 그 옛 주인이었던 안평대군을 떠올렸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당 현종의 영화가 조원궁의 퇴락한 모습으로 부질없이 스러져간 것처럼, 수성궁의 폐허에서 세종의 왕자였던 안평대군을 연상하였음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유영은 차고 간 술병을 남김없이 비우고는 문득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고 하였다.

유영은 꿈에서 운영과 김진사를 만난다. 그들이 안평 시대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 유영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안평대군의 영화로울 때의 일과 또 김진사 당신이 가슴 아파하는 일을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⁴⁶⁾

여기서 유영은 김진사에게 ‘대뜸’ 안평성시지사를 물은 것은 아니었다. 이미 그는 안평이 궁주로 있던 수성궁의 폐허를 목도하고, 그 허망함과 쓸쓸함에 겨워 술병을 다 비운 탓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진사가 여자와 겪은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또 그 당사자인 운영이 안평의 궁녀라 하니 그 내막과 함께 애초 마음에 맺혀 있었던 안평의 일을 듣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영의 각몽 이후 그의 내면에 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운영의 애정 비극에 한정되지 않고 안평성시지사에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운영의 애정사 외에, 안평의 일로 유영이 비극적

45) 柳泳 飽聞此園之勝槩 思欲一遊焉

46) 安平盛時之事 進士傷懷之由 可得聞其詳乎

인식을 갖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은 김진사와 운영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애정의 파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죽음 후 안평의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안평대군이 수성궁을 통하여 유가 성리학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면 두 사람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궁녀에 대한 감정은 장애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내면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안평은 비록 그 죽음을 반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운영과 김진사가 겪은 비극에서 한 발짝 비켜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 작품의 비극이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안평은 운영의 죽음을 목도한다. 안평이 서궁 궁녀들의 호소를 들은 후에는 노기를 풀고 모두 용서해 주었지만 운영은 그 날 저녁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운영의 죽음은, 운영과 김진사가 이루길 원했던 애정이 궁극적인 파탄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안평에 있어서 역시 자신이 추구하던 것에 대한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궁 궁녀들에 대한 치죄와 그로 인한 운영의 죽음은 이제 다시는 수성궁에 문장의 교감을 통한 흥성한 기운을 회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궁녀들을 교육시킴으로써 현실 정치에서 밀려난 비회를 또 다른 성취를 통해 정서적으로 극복하려 했던 안평의 의도가 이 시점에서 좌절을 맞게 된 것이다. 안평이 운영에 대해 은연한 연심을 두었다고 한다면⁴⁷⁾ 그 역시 이 일로 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평이 겪는

47) 정출현, 앞의 책, pp.113-118 참조.

심리적 좌절감과 공허는 마음에 두고 있는 자의 죽음에서 초래되는 것이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에게 두었던 마음까지도 현실정치에서 밀려나 수성궁으로 위축되어 문장으로나마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 모든 시도 중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이미 보았듯이 안평의 문필에 대한 경도는 궁녀들에게 업포의 빌미를 줄 정도로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운영의 죽음과 동시에 상실된 문필적 환경은 안평이 그동안 의지하던 모든 것이 남김없이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이상도, 최고의 문장가라는 명망으로 실낱같이 부여잡고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도, 운영에 대한 은근한 마음의 기울임도 모조리 허망한 처지에 빠져버린 것이다. 말하자면 이 작품의 비극은 운영과 김진사의 안타깝고 처절한 죽음과 함께, 자기실현의 모든 가능성이 봉쇄되어 존재적 의미마저 망실한 안평의 종막까지 포함하는 완전하고도 철저한 파탄에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서사적 귀결을 불러오는 유영의 각몽 직전 김진사의 다음 슬회는 그 비극적 무게를 어디에 두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작가서술적 의도를 엿보게 한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원통함을 안고 죽었습니다. 저승의 관리가 죄 없음을 불쌍히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 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승의 즐거움도 인간 세상보다 못하지 않는데, 허물며 천상 극락의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저녁의 이 슬픔은 대군께서 한번 패하시자 옛 궁에는 주인이 없게 되어 까막까치가 슬피 우짖고, 인적도 끊기니 지극히 비통해서입니다.⁴⁹⁾

48) 안평이 수성궁을 통하여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면 운영의 죽음이 그의 전적인 몰락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운영의 죽음으로 어느 정도의 상실감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념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진사 자신과 운영은 비록 세상에서 원통함을 안고 죽었지만 지금은 천상 극락의 즐거움에 만족하니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미 두 사람은 수성궁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이 시점에서는 해소되었다는 뜻이다. 두 사람은 애초 천상의 신선으로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까닭으로 인간 세상에 보내져 고통을 겪고 되고 이제는 그 지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삼청궁에 올라 향안전에서 시종 들게 되었다는 김진사의 이야기도 의미상 같은 맥락 속에 있다. 김진사가 유영에게 원고를 수습하여 전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오늘 당신과 서로 만나 나의 답답한 마음을 풀게 되었으니, 전세의 인연이 아니라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⁵⁰⁾”라고 한 이야기는 그 점을 더욱 분명히 한다. 자신과 운영이 전세에서 사랑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죽음의 종말을 맞게 됨으로써 맺었던 한스러움이 이제는 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평에 대해서는 그 슬픔이 그치지 않고 수성궁 폐허로 남아 비통함을 더한다고 하였다. 그들의 애정사로 겪은 비통함이 일시에 씻긴 것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안평의 몰락이 지나는 비극적 정조가 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김진사가 안평을 염두에 두고 ‘꽃 지는 궁중에는 제비, 참새 날아오르고 / 봄빛은 예 같으나 주인은 간 데 없네⁵¹⁾’라고 읊은 것도, 김진사 역시 비극을 겪은 당사자이나 더 큰 시름을 겪은 인물을 조상(弔喪)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안평의 비극적 무게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9) 吾兩人皆含怨而死 冥死矜其無罪 欲使再生人世 而地下之樂 不減人間 況天上之樂乎 是以不願出世矣 但今夕之悲傷 大君一敗 故宮無主 鳥雀哀鳴 人跡不到 已極悲矣

50) 今夕與子相遇 據此悃悞 非有宿世之緣 何可得乎

51) 花落宮中燕雀飛 春光依舊主人非

이상으로, 유영의 비극적 세계인식은 애정의 비극적 결말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았다. 그것은 운영과 김진사가 겪은 애정의 파탄에서 비롯되어 안평의 철저하고 완벽한 몰락에 대한 공감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 전체의 서사에서 비롯되는 애정의 파탄과 그 비극적 정조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지만은 작가는 최소한 형식 논리적으로는 비극의 궁극적 당사자로 안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영의 비극인식은 입몽 전 수성공의 폐허를 대하는 것에서 유인되어 한갓 남녀간 애정 문제에 국한하여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의 역사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영의 비극적 세계인식이 안평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작가적 의미를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유영이 겪는 각몽 후의 비극적 세계인식을 보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오로지 몽중의 인물들에 대한 관찰자적 체험에서만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데 있다. 유영의 몽중 체험은 결국 입몽 전 수성공 폐허 앞에 섰던 현재적 시점에서의 유영 자신에 대한 비극적 실상을 일깨우는 계기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 각성으로 이끈 인물이 안평이라면 유영의 비극 인식은 역사적, 사회적 범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작품 중 세 남성인물인 유영과 안평, 그리고 김진사의 성격적 형상에 관련된 작가서술적 의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안평이 옛 시인 중에 으뜸으로 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김진사가 하는 대답이다.

소생의 소견으로 말하자면, 이백은 천상 신선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의 보좌 앞에 있다가 현포로 내려왔는데, 신선주를 다 마시고 취흥을 이기지 못해 온갖 나무의 꽃을 꺾어 비바람에 실어 인간에 뿌린 기상이 있습니다. 노조린과 왕발은 해상의 신선입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며, 구름이 시각으로 변하고

푸른 물결이 일렁이며, 고래가 물을 뿜고 섬들이 아스라이 떠 있으며, 푸른 나무가 울창한 곳에 꽃들이 날리는데, 물새들 노랫소리 이무기와 용의 눈물은 모두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이 시의 조화입니다. 맹호연의 가락은 최고로서 사평에게 배웠으니 음률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상은은 신선술을 배워 일찍이 시마를 부려 일생 지은 작품이 귀신의 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외 많은 것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다.⁵²⁾

이백을 포함해서 언급한 시인들에 대한 김진사의 논평적 관점이 드러난다. 즉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상 신선이 취흥에 젖어 인간 세상을 탐하거나, 해상 신선이 조화로 가득 찬 대양에서 노니는 것 같은 초월적이고 환상적인 세계에 가치를 둔다는 이야기이다.

김진사의 이러한 가치관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궁녀인 운영과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한 내면적 요인이다. 김진사는 운영과 애정을 지속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잃게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을 것이다. 우선, 운영에 대한 사랑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안평의 권위에 흠집을 낼 뿐 아니라, 자신을 능력을 인정해주고 시우로 존중해 주는 데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선비로서 입신출세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그 부모를 포함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 김진사가 현실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성격이라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운영과의 애정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진사의 운영에 대한 사랑의 욕망은 개인적인 신의나 혈연적 유대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이었다. 그것은 위와 같이 그가 지닌 초월세

52) 以小子所見言之 李白天上神仙 長在玉皇香案前 而來遊玄圃 餐盡玉液 不勝醉興 鯨魚噴薄 島嶼滄茫 草樹蒼鬱 浪花菱葉 水鳥之歌 蛟龍之淚 悉藏於胸襟 此詩之造化也 孟浩然音響最高 此學師曠 習音律之人也 李義山學得仙術 早役詩魔 一生篇什 無非鬼語也 自餘紛紛 何足盡陳

계에 대한 그의 기본적 지향의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진사는 수성궁 바깥의 사회에 터전을 두고 있으면서 무너져 붕괴된 특과 같은 인물들과 서사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런데 운영의 애정사에서 그가 속한 공간인 궁 밖 사회는 수성궁과 개념적으로 대립적 형상을 보인다. 즉, 김진사에게 있어서 수성궁은 운영과의 애정 성취가 가능한 기대공간이지만, 특(特)이라는 인물로 표현되는 수성궁 밖은 복잡한 인간적 이해관계로 얽힌 현실공간이다. 특의 존재는 기존 논자의 견해처럼 노비계층에 대한 저항감을 표현하는 당대적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⁵³⁾ 현실의 강포함을 드러내는 상징적 인물일 수 있다. 그런데 김진사는 운영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특에게 끊임없이 농락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김진사는 이상적 환상적 가치에 대한 열망은 높으나 현실적 조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을 지니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낭만적 초월세계에 대한 정신적 지향은 운영과의 애정을 열정적이고 맹목적인 것으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적 판단과 인식의 부족은 애정을 성취하는 데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추구하는 가치는 명백한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머뭇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김진사는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기대 욕구에 반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 장애를 극복하려는 실천적 전략을 마련치 못하는 유약한 정신세계를 지닌 인물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안평대군을 보자. 안평대군은 수성궁이라는 문장왕국을 만들었다. 현실 정치에서 실패하고 자신의 의취에 몰입해 정서적 보상을 누리려

53) 신경숙, 앞의 논문, p.80.

는 것이었음은 이미 앞에서 보았다.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에 의해 축출되어 역사의 뒤안으로 밀려났다고 하였다. 수양대군 집권 후 훈구귀척에 의해 세종조의 문명시대는 빛이 바랬다. 그런데 위에서 본 김진사의 성격 형상은 바로 역사적 전환기에 적절한 대응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수성궁으로 퇴행한 안평대군에 대한 서술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문예적 취향은 높았지만 강포한 현실 앞에 속절없이 밀려난 인물로 안평을 본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잊지 못하고 특에게 농락당하는 김진사의 성격 형상과 그는 크게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된다.⁵⁴⁾ 그래서 안평의 수성궁 밖에서의 정치적 행동방식이 어떠한가는, 관념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 특이 존재하는 현실적 사회공간에서의 김진사의 행동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작가적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평에 대한 서술 시각이 비판적이거나 풍자적이지 않고 오히려 동정과 연민을 동반하고 있는 것은 왜인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다시 입몽 전 유영의 모습을 보자.

유영은 안평대군의 옛 거처였던 수성궁의 경치를 익히 듣고 한번 찾아 노닐고자 하였다. 그러나 ‘입은 옷이 남루하고 행색이 초라해 스스로 구경꾼의 웃음을 살까 하여 선뜻 가지 못하고 주저한지 오래되었다’⁵⁵⁾고 하였다. 기껏 용기를 내어 갔으나 우려한 바처럼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까지 받게 되었다.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유영의 모습이 다른 전기소설의 주인공들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단순히 고독한 방외인으로서의 인물이

54) 안창수교수는 운영과 김진사가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한 이유가 그들이 안평대군에게서 자신들의 삶의 동반자적 동질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본고의 논지와 더불어 참고할 만한 견해라고 하겠다.(안창수, 『<운영전>에 나타난 규범과 일탈의 변증법』, 『한민족어문학』 제5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1, pp.297-298 참조.)

55) 衣裳襤褸 容色埋沒 自知爲遊客之取笑 況將進而越趨者久矣

아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양반 선비로서 자격지심을 느낄 정도로 기본적인 외양도 갖추질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경꾼들의 손가락질은 그 무능함을 지적하였다는 뜻이다. 궁핍이 극에 달한 유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치를 찾아 즐기려고 이제나 저제나 틈을 보았다니 무능할 뿐더러 기껏 풍류나 탐하는, 환상에 젖어 사는 비현실적 성격의 소유자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액자 내의 김진사와 안평대군, 그리고 액자 밖의 유영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애정의 성취에서나 현실에서의 입신에서나 똑 같이 환상 세계에 대한 희구는 분명하나 실천력을 잃은 유약한 선비의 모습이다. 즉 이들은 17세기 중엽, 현실적 대응력을 상실한 당대 지식인 지배계층을 비판적 시각에서 성격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끊임없는 당파적 알력 가운데에서 내부적인 균열이 심화됨으로써 건국 초기 세종당대의 문명시대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채 결국은 임진왜란의 전화까지 초래한 조선 사회 문인지배층의 인격적 전형화로 볼 수 있겠다. 결국 안평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안평의 역사적 종말과 윤영의 애정사와 관련된 비극적 세계인식이 유영 자신에 대한 동일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시선은 유영의 심리적 반응의 형태로 작가적 내부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영의 비극적 종말담은 안평이나 김진사, 그리고 유영에게서 볼 수 있듯이, 당대의 모순된 상황에서도 변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던 무능하고 유약한 지배계층에 대한 작가서술자의 비극적 자기 인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소설공간으로서 수성궁의 성격을 적의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궁’이 지닌 왕조시대 절대권자의 거처로서의 일반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본다. 궁주 안평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인물간의 교섭과 그들이 조성하는 환경이 전통적인 궁중의 일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운영이 맞게 되는 비극적 파국에 대한 이해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게 본고의 입론 근거였다.

안평은 수성궁을 문장과 예능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였다. 역대 문장가들의 시적 성취에 관한 개인적 불만을 궁녀들을 교육시켜 해소하고자 한 것도 그런 의도에 닿아 있다. 안평이 궁녀들로 하여금 궁이 세속과의 절연을 강제한 의도는 성정의 순수성을 유지함으로써 극한의 시적 경지에 도달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안평이 궁녀들에게 요구한 것은 도학적 수양을 통한 유교적 인격의 달성이 아니라 그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높은 예술적 성취였기 때문이다. 안평의 이런 의도는 정치 현실에서의 실패를 문장이라는 장기로 보상하려는 심리에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안평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문필적 성과만이 자기 존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셈이다.

운영이 안평과 반드시 대립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 운영이 겪는 애정 파탄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운영의 김진사를 향한 사모의 정을 가로막는 것은 일단 남녀결연을 금하는 궁중 법도이다. 그러나 궁의 일반적 법도가 회피할 수 없는 절대적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이 작품의 비극적 특성이 있다. 여기에서 운영의 비극적 결점은 오직 어떤 선택도 용납되지 않고 오직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운영이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게 한 구성은 궁녀제도의 불합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의 훼손이 너무나 극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비극은 궁중제도라는 사회적 구조에서 배태된 완고한 세계의 질서 앞에 결국은 애정의 추구라는 인간 본연의 성정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전기소설의 서사 관습에서 비극적 정황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유영이 꿈을 깨고 난 후의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각몽 후 위 유영의 태도와 같은 서사관습적 결말을 전적으로 운영의 애정비극에 대한 몽유자 유영의 정서적 반응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유영의 각몽 이후 그의 내면에 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운영과 김진사가 겪은 애정의 파탄에서 비롯되어 안평의 철저하고 완벽한 몰락에 대한 공감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영의 비극인식은 한갓 남녀간 애정 문제에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역사 인식과 유관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김진사와 안평 그리고 유영, 이 세 인물은 액자 안팎에서 작가의 일정한 비극적 세계관이 성격적으로 분화된 것이다. 김진사는 이상적 환상적 가치에 대한 열망은 높으나 현실적 조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을 지니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안평대군은 현실 정치에서의 성취에 실패하고 자신의 의취에 몰입했다. 즉, 안평에 대한 서술적 관점은 현실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유약한 인물인 김진사로 환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전환기에 적절한 대응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수성궁으로 퇴행한 안평대군에 대한 이해 방식이 김진사의 유약한 성격으로 형상화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안평에 대한 이러한 시각이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비통합과 처절함을 동반하고 있는 것은 비극적 세계 인식이 유영의 심리적 반응의 형태로 작가적 내부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영의 종말담은, 건국 초기 세종당대의 문명시대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임진왜란의 전화까지 겪게 된 조선 사회 문인지배층의 비극적 자기 인

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진옥, 한국고전문학회 편, 『『금오신화』와 만남의 문제』, 『고전소설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 김윤식 편저,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지사, 1976.
- 김용흠, 『17세기 공론과 당쟁, 그리고 탕평론』, 『조선시대사학보』 71, 조선시대사학회, 2014.
- 박기석, 『운영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박일용,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국어국문학』 제98집, 국어국문학회, 1987.
-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_____, 標點·校釋『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第二版)』, 소명출판, 2007.
- 성현경, 『운영전』,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0.
-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제9집, 한성어문학회, 1990.
-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안창수, 『<운영전>에 나타난 규범과 일탈의 변증법』, 『한민족어문학』 제5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1.
- 엄태식, 『<운영전>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제2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제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고소설연구』 제2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 정출현,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사, 1999.
- 홍순민, 『조선시대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68, 역사문제연구소, 2004.
-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1971.
- Robert Scholes, 『문학과 구조주의』, 위미숙 역, 새문사, 1987.

Abstract

The meaning of Susung Palace as novel place
in <Woonyoung-Jun>

Moon, Beom-Doo

The main place of the novel <Woonyoung-Jun(운영전)> which was written in the middle of 17C is Susung Palace. Anpyung, one of King Sejong's sons, is the host of Susung Palace. The story is built a plot around love story between Yoonyoung, a court lady in Susung Palace, and Kim, a young scholar. Till now, researchers have regarded Susung Palace as the symbol of violence and oppression. Because their love is in confrontation with an Anpyung's order that any court lady must not meet any man who lived outside the palac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new meaning of Susung Palace. Anpyung's literary activity and education in Susung palace made court ladies understand human nature and have self-confidence. Therefore, Susung Palace is not the symbol of the gloomy and uncomfortable society which is composed of pressure and violence on the members of palace. That is the society of the literature and art.

It is believed that the social viewpoint of the this novel is focused on the problem of court ladies' human right in Josun dynasty. The final tragedy in the overall plot of this novel appears the time the dreamer awake from dream. That is the critical thought on the ruling class in Josun dynasty which did not have practical capability. On the other side, that is the self-reflection on the fact that they went through the great war for the reason of their political strife.

Key Word : Woonyoung-Jeon, Susung Palace, Prince Anpyung, Court lady, Tragedy, Josun Dynasty

문범두

소속: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자우편: bdmooon@gntech.ac.kr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